

- 편집부 -

## 자조금제도의 올바른 이해

지난 9월14일 오후5시 본회 회의실에서 양계 생산자 대표 및 자조금제도와 관련있는 학계, 정계, 연구기관에 계신 분들이 모여 자조금제도에 대한 개념정립을 위한 간담회가 있었다.

본고는 이날 논의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생산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다.

### 참석자 : (전문가)

오봉국(서울대 농대 교수)  
허신행(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영인(미국사료곡물협회 한국지부 회장)  
이인형(농림수산부 중소기업과장)

### (생산자)

장민기(버들농원 대표)  
최준구(삼우농장 대표)  
허 돈(청천농장 대표)  
정창각(삼주농장 대표)  
임용택(서일농장 대표)

사 회 : 황인옥(본회 전무)

### 자조금제도

자조금제도는 특정사업의 수행으로 사업의 혜택을 받는 자가 그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요되는 자금을 스스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조금제도의 시발은 서구의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끼리 활동의 필요성을 느껴 급여중 일부를 자동공제(check-off)하여 공동이익을 위한 활동비용으로 사용한 데서 유래되었다.

자조금은 그 집단의 공동이익 즉 집단의 구성원 개인 또는 일부의 힘만으로는 수행할 수 없는 산업 전체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성되어 사용하는 자금이다.

### 자조금제도의 성격

1. 합법적 절차에 의한 산업기금-산업의 특정 목적에 사용하는 목적기금으로 합리적 절차에 따라 제도화한다.

2. 생산자 자진부과-비용부담을 자진 의무화하는 법적 부과금으로 해야 한다.

3. 수익자의 공평한 자체부담-자조금에 의한 혜택은 사업규모와 관계가 있으므로 사업량에 비례해서 부담한다.

4. 무임승차 배제-생산자 모두의 참여를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에 무임편승을 배제해야 한다.

5. 극소액 부담-사육자의 총수입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적은 액수를 부과해야 한다.

6. 자동공제-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원료의 구매 또는 생산물의 판매시점에서 자동공제해야 한다.

7. 생산자 단체에 의한 관리-해당품목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조직에서 민주적으로 운영 관리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자조금제도는 민주주의 시대의 양계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대부분의 생산자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자조금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번에 그 개념부터 분명히 정립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간담회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 자조금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생산자 단체에서는 4년 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 자조금제도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어 이에 대한 확실한 개념정립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한국 실정에 맞는 제도를 찾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자조금은 원칙적으로 상품을 판매한 대금에서 공

제 징수해야 하는데 양계산업의 경우 유통구조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여 생산자재인 사료에 첨가 징수하려 하지만 중간자재에 부과하는 것은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한 측도 있다.

또 자조금은 생산자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줄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생산자가 낸 돈이라도 목적에 부합되는 용도에 정당하게 써야 함은 물론이다.

일부에서는 자조금으로 계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사업을 우선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축산법, 농안법 등 현행법에도 정부에서 가격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을 하도록 되어 있고 현행법에 입각하여 축산진흥기금, 농안기금이 있으니 수급조절 가격안정사업은 먼저 이 기금을 활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는 실정이다.

**생산자:** 양계산업이 사양산업화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다. 양계산업의 직접 이해관계 문제는 양계인의 문제라고 본다. 양계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

지난 2월 양계인대회에서 불황을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불황대처방안을 위한 자구책으로 기금을 모으기로 했다.

기금모금 방법으로는 양계사료 kg당 1원씩 떼기로 했다. '87년도 물량으로 볼 때 산란계사료에서 15억원 정도는 거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가격안정을 위한 수매비축사업에 8억원, 소비홍보사업에 2억원, 조사연구사업에 3억원, 조직운영비에 1억원, 기타 등에 쓸 수 있다고 본다.

**전문가:** 가격안정사업을 위한 생산자의 자구책이라는 점에는 긍정이 가지만 그러나 자조금의 원론적인 범위에는 포함시킨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가격안정사업은 어느 나라나 할 것없이 정부가 담당하는 영역이다. 이런 일을 하기에는 생산자의 힘으로는 무리라고 본다.

물론 생산자가 가격안정을 절실히 바라고 있는 답답한 심정을 이해하고는 있지만 먼저 자조금에 의해



서 소비촉진사업과 조사연구사업을 시작해서 생산자들의 결속과 합의가 이루어진 기초 위에서 가격안정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산자:** 사료에 부과하는 방법은 사료회사 실무자들도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법제화되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도 협조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생산자 대부분은 소비홍보사업 보다는 가격안정사업을 원하고 있다. 실제 작년에 양계조합에서 2억원으로 수매비축사업을 했을 때 가격이 오르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수매한 물건을 처분할 때 다시 가격이 내리는 문제가 나타났다. 정부의 현행 수매비축자금은 손해를 보아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어서 판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수매가 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생산자가 각자 부담한 기금으로 수매를 해서 가격안정효과를 거두어야 한다. 최악의 경우 버린다는 마음으로 수매에 임해야 효과를 얻어 업계에 도움이 된다.

현행법에도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축산진흥기금이 있지만 운용상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축협이나 농협도 위험부담이 있는 수매는 하지 않고 있어 결국 생산자 스스로가 해야 한다.

**전문가:** 사료에 부과하는 경우 수급상의 곤란 외에도 생산비 상승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이론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사료가격의 0.5%를 부과할 때 생산물의 원

“  
**공동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조금은 절대 필요하다.**  
**그러므로 자조금은 산업의 생산,**  
**유통·소비의 정상화를 위한 기초자금에**  
**쓰여지는 기금이다.**  
 ”

가상승요인은 0.35% 밖에 안되므로 실질적인 가격 상승요인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앞에서 생산자가 지적한대로 2억만 써도 가격상승 효과를 보았는데 그렇게 해서 가격이 안정된다면 더 할 나위없이 좋겠지만 수매비축으로 가격이 안정되면 생산자들은 생산물이 과잉되더라도 줄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곧 수매를 해도 끝이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으로 가격안정을 위해 수매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수매비축사업은 정부차원의 대규모, 지속적인 정책에 의해서 실시해야 실현 가능성이 있다. 생산자의 호주머니에서 낸 일시적인 소액의 안정기금형식으로 장기적인 가격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생산자:** 육계분야에서는 생산자의 부담금에 의한 가격안정사업을 크게 기대하지 않으며 수매효과도 특별히 나타나지 않는다고 본다. 홍보사업을 전개하면 닭 한마리라도 더 소비가 촉진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자조금제도는 대부분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기금거출은 사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고 본다. 현재의 실정상 도계장에서 거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전문가:** 원칙적으로 자조금은 단기적 자금이 아니다. 단기간에 큰 성과를 바라기 보다는 장기적 안목에서 산업을 발전시키는 일을 추진해야 한다.

사업시행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정하여 원칙적으

로는 소비촉진 및 연구사업 등을 목적으로 먼저 정해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격안정을 위한 제반 노력을 할애해서 쓸 수도 있을 것이다.

생산자 스스로 현행법에 있는 권리를 주장하여 수매비축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는데 자조금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결론**

양계산업의 당면과제는 **첫째**, 가격불안정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있다. 가격안정이란 생산, 유통, 소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하게 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산업 전체의 정상적인 발전이 전제되지 않고는 가격안정이 있을 수 없다.

**둘째**, 양계산업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산업내 각 부분의 정상적인 조직 및 운영이 필요하다. 생산자 각자의 농장내 역할도 중요하지만 농장밖의 산업 공통문제 해결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공동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조금은 절대 필요하다. 그러므로 자조금은 산업의 생산, 유통, 소비의 정상화를 위한 기초자금(기반조성)에 쓰여지는 기금이다.

**세째**, 가격안정을 위한 수급조정 및 수매비축사업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소관업무이다.

따라서 생산자는 자조금을 적절히 활용하여 정부를 통한 가격안정사업이 원만히 되도록 그 뒷바라지를 잘 해줘야 한다.

**양계**